

전위 공격성과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신체화 및 우울의 관계[†]

서민재 박기환[‡]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공격을 유발한 대상에 대한 보복이 아닌 무고한 대상에게 공격성을 표출하는 전위 공격성의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판 전위 공격성 질문지(Korean version of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K-DAQ)”를 사용하여,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신체화, 및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대학생 36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뒤, K-DAQ 수준에 따라 상위 30%와 하위 30%로 두 집단을 나누고 사회적 바람직성을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은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이 낮고, 신체화와 우울경향은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K-DAQ의 세 가지 하위요인이 각 변인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전위 공격성 질문지, 특성 전위 공격성,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신체화, 우울

[†] 본 연구는 2012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수정·정리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기환,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Tel : 02-2164-4924, E-mail : psyclinic@catholic.ac.kr

현대 사회가 발전하고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인간의 공격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 문제와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범죄의 피해대상이 직접적으로 범죄자의 공격성을 유발한 경우도 있으나,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총기난사 사건들과 같이 범죄의 대상이 가해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무차별적인 경우도 있고, 가정폭력과 같이 피해자가 면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격성 유발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범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예측할 수 없어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 중의 하나가 바로 “전위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이다.

전위 공격성은 공격성을 유발한 대상을 향한 보복이 불가능 할 경우 그 대상에게는 공격성을 억제했다가 다른 무고한 대상에게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Dollard, Doob, Miller, Mowrer, & Sears, 1939; Hovland & Sears, 1940). 전위 공격성에 대한 주제는 Dollard 등(1939)의 연구 출판물인 *Frustration and Aggression*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최근에 편찬된 전위 공격성의 실험적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는 전위 공격성 행동을 연구한 82개의 개별적 실험을 포함한 50개의 논문을 분석하였을 때, 전위 공격성이 실재하는 현상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Marcus-Newhall, Pedersen, Carlson, & Miller, 2000; Miller, Pedersen, Earleywine, & Pollock, 2003).

국내에서는 전위 공격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격성에 대한 동서양 비교 문화 연구에서 직접 공격성은 서양문화권인 영국

대학생이 높게 나타나고 전위 공격성은 동양 문화권인 홍콩 대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볼 때(Redford, 1999), 전위 공격성은 부적 정서의 억제를 중시하는 동양 문화권에서 더욱 특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위계가 중시되기 때문에(한규석, 1988), 자신보다 연장자이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대하는 분노표현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장승민, 민경환, 2000), 자신보다 연장자에게 분노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있어(류준범, 2000), 전위 공격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므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위 공격성의 연구는 한국인의 공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위 공격성

공격성이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는 행동을 의미하며 어떤 개인의 공격성이 유발되어 복수하기 위해 그 유발자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이를 직접(direct) 공격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격의 대상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단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것뿐인 무고한 사람이라면 공격성이 전위되었다(displaced)라고 한다(Bushman, Bonacci, Pedersen, Vasquez, & Miller, 2005; Miller & Marcus-Newhall, 1997).

초기에 전위 공격성을 설명한 것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개념에서 설명한 추동-감소 이론이었다(Dollard et al., 1939). 이 관점은 좌절이나 유발 사건 뒤에 공격성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만약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공격 추동이 좌절의 제공

자에게 향하지 못한다면, 그 공격 추동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무고한 대상을 향해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Denson, 2008b; Miller et al., 1997). 이와 함께 전위 공격성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은 카타르시스 가설이다. 카타르시스 가설은 유발사건과 좌절에 뒤따르는 분노 감정을 정화하고 해소하는 것이 기분을 개선시킨다는 가설이다(Bushman, Baumeister, & Phillips, 2001; Konecni, 1974; Konecni & Doob, 1972).

현대에 들어서 전위 공격성에 대한 설명은 사회 인지적인 관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Berkowitz의 인지적 신연합주의 모델(Cognitive Neoassociationistic Model: CNA, 1989, 1990, 1993)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는 혐오적인 사건이 나타나면, 연합 네트워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생각, 기억, 심리적 반응, 운동적 반응이 차례로 활성화되어 부정적인 정동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Berkowitz(1990, 1993)는 이러한 과정이 두 가지 단계를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는데, 첫 단계에서는 혐오적인 사건에 대해 두가지 다른 양상의 반응 즉, 투쟁(fight) 경향과 도주(flight) 경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직접 공격성이 투쟁경향과 관련이 있다면, 전위 공격성은 유발 사건 발생 시에 우선적으로 억제를 한다는 점에서 도주와 관련있다고 할 수 있다(Denson, Pedersen, & Miller, 2006).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발생된 사건에 대한 파악과 향후 결과에 대한 고차원적 인지적 과정이 시작되며 이에 따라 공격성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Pedersen, 2006). Miller 등(2003)은 Berkowitz의 인지적 신연합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전위 공격성의 이론적 모델을 통해 두 가지 과정을 설명하였다. 즉, 최초 유

발사건이 발생하고 이어 사소한 도발사건이 나타날 때 전위 공격성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최초 유발사건이 발생되고 15분 내의 짧은 시간 동안은 각성이 일어나 두 번째 도발 사건 때 공격성이 촉발되는 반면, 최초 유발사건 시점과 두 번째 도발사건 시점 간의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반추가 공격행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ay, 1976; Doob & Climie, 1972). 이러한 점에서 반추가 전위 공격성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성 전위 공격성

이러한 이론들에 근거하여 전위 공격성의 개인적 특성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CNA 모델은 혐오적 사건이 연합적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켜 부정적 정서를 야기한다는 가설이다. 이때 성격적 요인을 고려하면 이러한 네트워크 간의 관계성은 더욱 강력해지며 성격적 요인이 큰 사람은 작은 촉발 사건에도 더 공격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Berkowitz, 1990).

Miller 등(2003)은 CNA 모델에 근거하여 전위 공격성이 많이 나타나는 성격적 특성으로 특성 공격성과 반추 경향 등을 언급했다. 물론 특성 공격성이 높은 사람이 많은 영역에서 적대적이고 직접적인 공격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Bushman & Wells, 1998). 그러나 Miller 등(2003)은 특성 공격성과 전위 공격성에 대해 지금까지 직접적인 연결을 한 연구는 없어도 직관적인 견해에서 전위 공격성도 예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앞서 전위 공격성에 대한 설명에

서 나온 것처럼 반추 역시 전위 공격성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Berkowitz의 CNA 모델을 근거로 한 일반적 공격성 모델(General Aggression Model: GAM, Anderson & Bushman, 2002)에서는 반추가 GAM 내에서 상황적 혹은 성격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공격성과 관련한 인지, 정동, 각성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반추를 조작한 실험적 연구들에서 반추는 직접적인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ushman, 2002; Konečni, 1974), 공격적 정동과 인지뿐만 아니라 심장 반응까지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Pedersen et al., 2011; Rusting & Nolen-Hoeksema, 1998). Denson 등(2006)은 이러한 연구들을 근거로 최초의 유발사건에 대해 반추하는 것이 전위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최근 실험 연구를 통해 반추 중에서도 유발 사건에 대한 반추(provocation focused rumination; brooding)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반추(self-focused rumination; reflection) 역시 전위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입증했다(Pedersen et al., 2011). 또한, 선행연구에서 직접 공격성은 반추(brooding)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나 반성(reflection)과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 전위 공격성은 반추, 반성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서민재, 2009),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에게서의 반추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Denson 등(2006)은 이와 같은 여러 이론들을 근거로 공격이 전위되기 쉬운 경향의 개인차를 특성 전위 공격성(trait displaced aggression)이라 명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전위 공격성 질문지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DAQ)를 개발했다. DAQ의 하위 척도는 연합 네트워크 내의 공격에 대한 감정, 인지 및 각성에 대응하는 형태로, 감정적 요소로서 “분노 반추(angry rumination)”, 인지적 요소로서 “보복 계획(revenge planning)”, 행동적 요소로서의 “행동적 전위 공격성(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의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분노 반추”는 유발 상황에 의해 발생한 분노에 대해 반추를 행하는 경향을 측정하며 “보복 계획”은 유발 상황에 대해 악의를 품고 보복을 꾀하는 경향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전위 공격성”은 도발의 원천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공격을 가하는 경향을 측정한다. 즉,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화가 난 일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분노, 흥분을 자주 느끼고 이에 대한 앙갚음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며 무고한 사람에게 분노를 풀어내는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다.

특성 전위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특성 직접 공격성을 근거로 많이 이루어졌다. 특성 전위 공격성과 특성 직접 공격성은 생물학적 요인, 사회적 학습, 정서적 불안정성, 빈번한 분노 경험, 적대적 귀인 양식의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공유한다. 그러나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은 특성 직접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과는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성 전위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직접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들과 달리 유발상황에서 행동적으로 억제를 보이고 유발상황의 원인 제공자를 향한 공격성을 철수한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전위 공격성이 행동적 억제와 회피대처방식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arver & White, 1994; Denson, 2009; Denson et al, 2006;

Denson, Pedersen, Ronquillo, & Miller, 2008). 이러한 차이들을 감안할 때,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은 직접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보다도 좀 더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좀 더 이해해보고자 한다.

특성 전위 공격성과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신체화 및 우울

특성 전위 공격성과 사회적, 심리적 문제와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 외적으로는 가정 폭력, 학교 폭력, 운전 중 분노, 직장 내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Barling, Dupre, & Kelloway, 2009; Denson, 2008a; Denson et al., 2006; Hoaken & Stewart, 2003; Hoobler & Brass, 2006), 개인 내적으로는 신체증상, 고위험성행동, 알코올 의존, 약물 남용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Denson et al., 2008b). 또한,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은 알코올 섭취한 상황에서 무고한 사람에게 공격성을 표현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enson, White, & Warburton, 2009). 특히,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위 공격성은 반추 성향이 강하고 행동적 억제 성향이 강하며 회피 대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외현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직접 공격성과 달리 내현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Lyubomirsky & Tkach, 2004; Reznick, Hegeman, Kaufman, Woods, & Jacobs, 1992; Thomsen 2006; Thomsen et al., 2004). 본 연구에

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특성 전위 공격성이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자아존중감, 신체화, 우울과 같은 개인 내적인 변인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연인과 같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 지지가 되어주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는 연구(Denson et al., 2006)를 감안하여, Denson 등(2008)은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삶의 질과 상관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했고, 그 가정이 합당하다는 것을 경험적인 연구결과로 보여주었다. 즉,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은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고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등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은 주관적인 심리적 안녕감이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위 공격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거의 없지만,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관련된 일부 연구가 있다. 자기애가 높은 자존감을 반영하는지 혹은 불안정하고 낮은 자존감에 의해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그러나 자기애와 전위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를 살펴보면, Bushman과 Baumeister(1998)는 자기애성 성격인 사람들이 자아-위협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직접 공격성은 유의하게 나타내었지만, 전위 공격성은 유의하게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였으나(Baumeister & Bushman, 2000; Bushman & Baumeister, 1998), Twenge와 Campbell(2003)은 이와 반대로 자기애성 성격인 사람이 사회적 거절을 당한 상황에서 전위 공격성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수용을 받은 상

황에서는 전위 공격성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등, 비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인 반추적 사고는 분노 감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분노-적대감-공격성과 관련한 유해한 영향들이 증가되면서 심장기능 및 스트레스에 대한 내분비와 면역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Brosschot, Gerin, & Thayer, 2006).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은 특성 직접 공격성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분노억제를 더 높게 보였고(이하나, 2009). 특성 전위 공격성은 분노억제와 신체화 증상과의 관련성이 높았다(Koh et al., 2005; Liu et al., 2011). 분노 억제를 하는 경향이 내적인 고통과 스트레스 경험과 관련되며 다양한 의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김교현, 1995; 김교현, 전경구, 1997; 한덕웅, 박준희, 2003),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은 신체화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Denson 등(2008)의 연구에서도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은 수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반응양식이론(Response Style Theory)에 따르면 반추 반응양식을 가진 사람은 우울 증상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우울증상을 지속, 심화시킨다고 하였다(Nolen-Hoeksema, 1991). 많은 연구에서 반추 경향과 우울, 불안, 슬픔 등의 부적 정서와의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다(Thomsen, 2006). 전위 공격성에서 직접 공격성과 구분되는 특성인 행동적 억제 성향 역시 우울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znick et al., 1992). 이를 고려해 볼 때,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은 대상에 대한 분노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력감

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추 역시 우울감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성 전위 공격성의 정도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신체화, 및 우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특성 전위 공격성의 세 하위 요인들이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신체화, 및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 동안 많이 이루어진 직접 공격성에 대한 이해에 추가하여, 좀 더 예상이 어렵고 당혹스러운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특성 전위 공격성을 이해하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아울러,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문제들을 밝힘으로써, 향후 이들의 스트레스 관리나 정신건강 함양 등의 건강심리학적 개입을 하고자 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방법

참여자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384명이었고, 그 중 문항을 빠뜨리거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15명의 자료를 제외한 최종 369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에 참가한 인원의 구성은 남자 39.8%(147명), 여자 60.2%(222명)이었고, 평균연령은 만 22.7세(SD=3.16)이었다.

측정 도구

한국판 전위 공격성 질문지 (Korean Version of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K-DAQ). Denson 등(2006)이 개발한 전위 공격성 질문지(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를 서민재(2009)가 번안, 타당화한 척도로 사용하였다. 타당화 과정을 통해 원 DAQ의 31문항 중 총 29문항을 추출하였으며, 원 DAQ와 마찬가지로 "행동적 전위 공격성", "분노 반추", "보복계획"의 세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 하위척도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분노 반추가 .93, 보복 계획이 .89, 행동적 전위 공격성이 .92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5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표준화한 척도로 사용하였다. 6개의 차원을 포함하는 총 4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자율성은 .57, 환경에 대한 통제력은 .75, 개인적 성장은 .71, 삶의 목적은 .81, 긍정적인 대인관계 .81, 자아수용 .86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92로 나타났다.

Rosenberg 자존감 척도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전반적인 자기개념과 관련된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전병재(197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

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간이 정신 진단 검사의 신체화 척도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omatization Scale). 간이 정신 진단 검사는 Derogatis, Lipman과 Covi(1973)가 개발하고 김광일, 김재환 및 원호택(1984)이 번안, 제작한 척도로 9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12문항으로 구성된 신체화 척도만을 사용하였으며 신체증상을 Likert식 5점 척도상에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Beck 우울 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 Ward, Mendelson, Mock 및 Erbaugh(1961)가 개발한 우울에 대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및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괄하여, 우울증의 심각도를 측정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Beck 우울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Social Desirability Scale: SDS).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Crown과 Marlowe(1964)가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주일(1988)이 13문항의 단축형을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려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60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가설 검증을 위하여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분석을 위해 K-DAQ의 총점을 빈도 분석을 한 뒤 상위 30%(104점 이상)와 하위 30%(71점 이하)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자신의 좋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사회적 바람직성이 자신의 공격성에 대한 평가에서 혼입변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Denson, 2006), 전위 공격성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 사회적 바람직성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집단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t(215)=-12.05, p<.01$) 사회적 바람직성을 공변인으로 통제하기로 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면서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신체화 및 우울과 같은 종속변인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을 공변인으로 두고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종속변인들에 미치는 K-DAQ 하위요인들의 상대적 설명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량 및 성차

K-DAQ의 하위척도 및 전체의 기술통계량이 표 1에 나타나 있다.

특성 전위 공격성 수준에 따른 변인들의 공변량 분석 결과

특성 전위 공격성의 수준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가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특성 전위 공격성을 상하 30%로 집단을 나누었다.

공변량 분석을 하기에 앞서, 우선 회귀 동등성과 공변인, 종속변인 간의 선형적 관계성이 있는 지를 확인 하였다. 그 결과, 집단과 공변인인 사회적 바람직성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F(1,213)=.10, p=.75$), 회귀 동등성이 나타났으며, 공변인인 사회적 바람직성과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의 선형적 관계가 나타나 두 가지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마찬가지로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차원을 비롯한 다른 종속변인들, 즉 자아존중감, 신체화 및 우울에 대해서 확인해본

표 1. K-DAQ의 하위요인별 기술통계량

	남자 (n=147)	여자 (n=222)	전체 (N=381)
행동적 전위 공격성	24.43 (9.65)	30.57 (10.01)	28.13 (10.30)
분노 반추	33.45 (11.77)	37.48 (12.25)	35.87 (12.2)
보복 계획	24.65 (9.26)	24.60 (8.99)	24.62 (9.09)
전체 K-DAQ	83.87 (25.92)	96.36 (25.18)	92.56 (26.02)

주. Mean(SD)

결과, 두 가지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의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뒤에도 집단 간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1,214)=23.95, p<.01, \eta^2=.10$)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위 공격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성 전위 공격성의 수준에 따른 집단차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차원에서 나타나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율성($F(1,214)=1.87, p=.17, \eta^2=.01$)을 제외한 다섯 가지 하위 차원에서 유의한 집단차가 나타났다($F(1,214)=18.30, p<.01, \eta^2=.08; F(1,214)=11.22, p<.01, \eta^2=.05; F(1,214)=4.74, p<.05, \eta^2=.02; F(1,214)=43.08, p<.01, \eta^2=.17; F(1,214)=11.33, p<.01, \eta^2=.05$). 즉,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자율성의 측면에서는 차

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적으며 삶에 대해 뚜렷한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대인관계에 취약하며 자신에 대한 만족이나 수용도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성 전위 공격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낮았고($F(1,214)=18.73, p<.01, \eta^2=.02$), 신체적 증상과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214)=7.51, p<.01, \eta^2=.03; F(1,214)=26.58, p<.01, \eta^2=.11$).

특성 전위 공격성의 하위 요인이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특성 전위 공격성의 하위 요인인 행동적 전위 공격성, 분노 반추, 보복 계획이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신체화 및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설

표 2. 특성 전위 공격성 수준에 따른 변인들의 공변량 분석 결과

변인	DA 고 (n=114)	DA 저 (n=103)	F^a	η^2
	M(SD)	M(SD)		
심리적 안녕감	148.87 (17.33)	172.95 (19.63)	23.95**	.10
자율성	23.77 (3.69)	25.34 (4.04)	1.87	.01
환경 통제력	24.48 (3.55)	29.53 (4.56)	18.30**	.08
개인적 성장	28.49 (4.68)	32.01 (3.75)	11.22**	.05
삶의 목적	24.25 (4.08)	27.03 (4.31)	4.74*	.02
긍정적 대인관계	23.94 (4.39)	29.49 (3.46)	43.08**	.17
자아수용	23.95 (4.95)	28.95 (4.94)	11.33**	.05
자아존중감	27.18 (4.48)	32.06 (4.30)	18.73**	.02
신체화	27.75 (9.63)	22.81 (6.86)	7.51**	.03
우울	11.82 (8.41)	4.22 (4.18)	26.58**	.11

주. DA: 특성 전위 공격성. ^a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값임.

* $p<.05$. ** $p<.01$.

명량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세 가지 하위요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후 보복계획이 추가적으로 약 7%정도 설명하였고($F(1,366)=34.08, p<.01$), 분노 반추

가 추가적으로 약 2%정도 설명하였다($F(1,366)=8.11, p<.01$). 그러나 행동적 전위 공격성은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차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율성에 대해 행동적 전위 공격성이 약 2%정도를 설명하였으며($F(1,366)=5.55, p<.05$), 다른 변인들은 자율성을

표 3. 특성 전위 공격성의 하위 요인이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독립 변인	β	t	R^2	ΔR^2	ΔF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바람직성	.25	4.81	.183	.183	82.37**
	보복계획	-.20	-3.27	.253	.070	34.08**
	분노반추	-.18	-2.85	.269	.016	8.11**
자율성	사회적 바람직성	.10	1.64	.027	.027	10.15**
	행동적 전위 공격성	-.14	-2.36	.041	.015	5.55*
환경통제력	사회적 바람직성	.30	5.86	.197	.197	90.25**
	분노반추	-.31	-6.20	.274	.076	38.45**
개인적 성장	사회적 바람직성	.09	1.60	.068	.068	26.80**
	보복계획	-.22	-3.74	.124	.056	23.25**
	행동적 전위 공격성	-.13	-2.17	.135	.011	4.69*
삶의 목적	사회적 바람직성	.25	4.57	.116	.116	48.16**
	보복계획	-.19	-3.51	.145	.029	12.31**
긍정적 대인관계	사회적 바람직성	.11	2.02	.105	.105	43.24**
	보복계획	-.25	-3.98	.211	.106	49.02**
	분노반추	-.21	-3.34	.234	.023	11.16**
자아수용	사회적 바람직성	.23	4.25	.147	.147	63.19**
	분노반추	-.20	-3.07	.203	.056	25.53**
	보복계획	-.13	-2.00	.211	.009	4.00*
자아존중감	사회적 바람직성	.20	3.72	.138	.138	58.88**
	분노반추	-.22	-3.39	.207	.069	31.90**
	보복계획	-.15	2.31	.219	.011	5.32*
신체화	사회적 바람직성	-.004	-.07	.028	.028	10.68**
	행동적 전위 공격성	.21	3.51	.078	.050	19.71**
	분노반추	.13	2.09	.089	.011	4.38*
우울	사회적 바람직성	-.09	-1.69	.110	.110	45.30**
	분노반추	.33	6.02	.225	.115	54.30**
	행동적 전위 공격성	.17	3.07	.244	.019	9.32**

* $p<.05$. ** $p<.01$.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통제력에 대해서는 분노반추만이 유의하게 설명하였다($F(1,366)=38.45, <.01$). 개인적 성장변인에 대해 보복계획이 6%정도를 설명하였으며($F(1,366)=23.25, p<.01$), 행동적 전위 공격성이 약 1%를 설명하였다($F(1,365)=4.69, p<.05$).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보복계획만이 유의하게 설명하였다($F(1,366)=12.31, p<.01$). 긍정적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보복계획이 약 11%정도를 설명하였으며($F(1,366)=49.02, p<.01$), 분노 반추가 약 2%정도를 설명하였다($F(1,365)=11.16, p<.01$). 마지막으로, 자아수용에 대해서는 분노 반추가 약 6%의 변량을 설명했으며($F(1,366)=25.53, p<.01$), 보복계획은 1%정도를 유의하게 설명했다($F(1,365)=4.00, p<.05$).

특성 전위 공격성 하위 요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량을 알아본 결과, 분노반추가 약 7%의 설명량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F(1,366)=31.90, p<.01$). 보복계획은 약 1%정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F(1,365)=5.32, p<.05$). 그러나 행동적 전위 공격성은 유의하게 자아존중감을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특성 전위 공격성의 하위 요인들이 신체화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관련변인들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우선 신체화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세 가지 요인 중 행동적 전위 공격성의 신체화에 대한 설명량이 5%로 가장 많았고($F(1,367)=19.71, p<.01$), 분노 반추는 1%정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F(1,366)=4.38, p<.05$). 그러나 보복 계획은 신체화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우울에 대해 특성 전위 공격성의 하위 요

인들이 얼마나 설명량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분노 반추는 우울에 대해 약 1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1,366)=54.30, p<.01$). 행동적 전위 공격성은 우울에 대해 약 2%정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으며($F(1,365)=9.32, p<.01$), 보복 계획은 우울에 대해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공격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다른 무고한 대상에게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향인 전위 공격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전위 공격성이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Denson 등(2006)이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한 DAQ를 서민재(2009)가 타당화한 K-DAQ를 이용하여 전위 공격성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특성 전위 공격성은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enson 등(2008)은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역기능적 문제해결 경향이 있고 가족이나 연인과 같은 사회적 지지의 원천을 멀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결과,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저조한 심리적 안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분노 유발자에게 보복하는 상황을 생각하는 ‘보복

계획'요인이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분노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떠올리는 '분노 반추'요인이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동적 전위 공격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위 공격성의 성향 중에서도 유발사건에 대해 적대적인 반추를 하거나 사건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분노를 많이 가진 사람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성 전위 공격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차원의 관계를 보았을 때,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자신이 주변 환경을 관리하고 외적 행동 계획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부족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긍정적 대인관계 하위 차원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는 Denson 등(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전위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현재까지 전위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공격성향과 낮은 자아존중감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대로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 전위 공격성의 하위요인에서는 '분노 반추'요인과 '보복 계획'요인이 자아존중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노 사건에 대한 반복적 사고와 유발 원인

제공자를 향한 분노가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위 공격성의 특성이 높은 사람들이 직접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을 비하하는 경향이 있고 호감이나 인정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등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이하나, 2009)를 감안할 때,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은 내면의 분노감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면서 불만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무관한 대상에게 표현하게 되면서 자책감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특성 전위 공격성과 정신건강 관련변인들, 즉 신체화와 우울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신체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신체질환을 호소했다고 보고한 Denson(2008a)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은 경험되는 스트레스 사건을 곧바로 처리하기 보다는 자기 초점적 사고나 반추와 같은 내적 작업을 통해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체내 각성 및 긴장 수준을 높여 신체적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일조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위 공격성이 발생한 결과로 대인관계를 포함한 여러 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내적인 스트레스는 더욱 축적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은 더욱 클 것으로 추측된다. 우울의 경우에도 특성 전위 공

격성이 높은 사람은 우울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성 전위 공격성 중에서도 ‘분노 반추’ 하위 요인이 우울을 가장 많이 설명하였으며 ‘행동적 전위 공격성’이 그 다음으로 많이 설명하였다. 전술하였듯이 많은 연구들에서 반추적 사고가 우울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 (Miller et al., 2003)을 감안하였을 때,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은 촉발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에 대한 분노에 몰입하고 반추함으로써 공격성을 증폭시키는 한편 이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면서 내적 불만감이 커지고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이 심리적 안녕감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으며 신체화 및 우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성 전위 공격성이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며 정신건강 측면에서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전위 공격성이 직접 공격성과 달리 외현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공격성이 어떠한 방식이나 대상에게 표출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의 심리 내적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이며, 전위 공격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특성 전위 공격성 내에서도 ‘분노 반추’ 하위 요인은 여러 변인들에 걸쳐 일관되게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추 경향 자체로도 독립적으로 많은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치료적 차원에서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의 분노 반추 경향에 대해서 다루주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주된 초점이 되어왔던 직접 공격성에서 벗어나 전위 공격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고찰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직접 공격성 성향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었던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전위 공격성 개념을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전위 공격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라는 점이다. 전위 공격성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높아지면서 이에 관련한 외국 논문들은 많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내에선 전위 공격성을 주제로 한 연구가 거의 없다. 그러나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위 공격성은 동양에서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와 같이 상하서열이 엄격한 사회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국내에서의 전위 공격성의 연구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는 그 첫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현상으로서의 전위 공격성을 벗어나 성격적 특성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개인 내적인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위 공격성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Denson 등 (2006)의 연구 이후에 특성 전위 공격성이란 용어가 처음 생기고 성격적 특성으로서의 전위 공격성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성격적 변인을 살펴보는 것은 한 개인의 부적응적인 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성격적인 변인들을 살펴보면서 개인 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정신 건강과 관련된 변인들과 특성 전위 공격성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

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성 전위 공격성과 사회적 현상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몇몇 있었으나, 이러한 개인 내적인 변인, 특히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특성 전위 공격성이 어떠한 개인내적 역기능적인 결과와 관계되는지를 밝히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전위 공격성도 분노와 공격성의 표현 및 대처 방식의 한 양식으로 이해되며 이와 관련해 특성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신체화 등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건강심리학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의 심리적 취약성에 대해 이해하고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다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특정 대상을 향한 물자마식 범죄, 가정 폭력, 학교 폭력과 같이 전위 공격성과 관련된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연구의 결과를 전체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즉, 더 다양한 장면에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직접 공격성을 포함하지 않다보니 전위 공격성과 직접 공격성 간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전위 공격성이 직접 공격성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Tanno, 2008), 본 연구에서도 전위 공격성과 직접 공격성을 구분하기 보다는 전위 공격성의 전반적인 특성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Denson(2006)의 연구에서도 DAQ의 세 가지 하위 유형이 특성 적대감, 특성 분노, 직접 공격성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민재(2009)의 연구에서도 특성 전위 공격성과 직접 공격성과의 높은 상관이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전위 공격성과 직접 공격성이 많은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좀 더 명확하고 순수한 의미의 전위 공격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공격성에 대한 통계나 직접 공격성과 전위 공격성 간의 뚜렷한 구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직접 공격성과 전위 공격성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직접 공격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전위 공격성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위 공격성과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신체화, 우울 등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신체화, 우울 각 변인 간의 관련성도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특성 전위 공격성과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일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전위 공격성과 각 부적응적인 결과들에 대한 인과적인 관계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 다양한 부적응적인 결과들과의 관련성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김교현 (1995). 분노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노출이 생리적 각성, 정서 및 인지적 이해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237-252.
- 김교현, 전경구 (1997). 분노, 적대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79-95.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류준범 (2000). 분노의 다차원적 특성과 신체 건강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민재 (2009). 전위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과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하나 (2009). 전위된 공격성 집단의 특성에 관한 탐색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일 (1988). 이분척도와 Likert 형 7점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반응양식의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장승민, 민경환 (2000). 권력동기와 친애동기가 분노의 표현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조절에서 동기의 역할. *한국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하계 학술발표논문집*, 28-47.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1), 107-130.
- 최미례 (2004). 우울에 미치는 우울반응 양식의 효과: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53-972.
- 한규석 (1998).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덕웅, 박준희 (2003).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분노경험이 주관안녕과 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147-168.
- Andersen, C. A., & Bushman, B. J. (2002). Human agg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27-51.
- Barling, J., Dupre, K. E., & Kelloway, E. K. (2009). Predicting workplace aggression and viol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671-692.
- Baumeister, R. F., Bushman, B. J., & Campbell, W. K. (2000). Self-esteem, narcissism, and aggression: Does violence result from low self-esteem or from threatened egot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 26-29.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571.
- Ber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 59-73.
- Berkowitz, L. (1990). On the formation and regul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A cognitive-neoassociationistic analysis. *American Psychologist*, 45, 494-503.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McGraw-Hill.
- Brosschot, J. F., Gerin, W., & Thayer, J. F. (2006). The perseverative cognition hypothesis: A review of worry, prolonged stress-related physiological activation and health.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0, 113-124.
- Bushman, B. J. (2002). Does venting anger feed or extinguish the flame? Catharsis, rumination, distraction, anger, and aggressive respond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724-731.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 Bushman, B. J., Baumeister, R. F., & Phillips, C. M. (2001). Do people aggress to improve their mood? catharsis belief, affect regulation opportunity, and aggressiv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17-32.
- Bushman, B. J., Bonacci, A. M., Pedersen, W. C., Vasquez, E. A., & Miller, N. (2005). Chewing on it can chew you up: Effects of rumination on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969-983.
- Bushman, B. J., & Wells, G. L. (1998). Trait aggressiveness and hockey penalties: Predicting hot tempers on the i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 969-974.
- Carver, C. S., & White, T. L. (1994). Behavioral inhibition, behavioral activation, and affective responses to impending reward and punishment: the BIS/B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319-333.
- Crowne, D. P., & Marlow, D. (1964). *The approval motive*. New York: John Wiley.
- Day, K. D. (1976). Short-lived facilitation of aggressive behavior by violent communications. *Psychological Reports*, *38*, 1068-1070.
- Denson, T. F. (2008a).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placed aggression as a risk factor for poor cardiovascular health. In S. Y. Bhave & S. Saini (Eds.), *Anger-hostility-aggression syndrome and cardiovascular diseases* (pp. 110-118). New Delhi: Anamaya Publications.
- Denson, T. F. (2008b). Displaced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S. Y. Bhave & S. Saini (Eds.), *Anger-hostility-aggression syndrome and cardiovascular diseases* (pp.43-54). New Delhi: Anamaya Publications.
- Denson, T. F. (2009). Angry rumination and the self-regulation of aggression. In J. P. Forgas, R. F. Baumeister, & D. M. Tice (Eds.), *The psychology of self-regulation*(pp.233-248). New York : Psychology Press.
- Denson, T. F., Pedersen, W. C., & Miller, N. (2006). The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1032-1051.
- Denson, T. F., Pedersen, W. C., Ronquillo, J., & Miller, N. (2008). Trait displaced aggression, physic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A process model. In S. Boag (Ed.), *Personality down under: Perspectives from Australasia*(pp.203-211). Hauppauge : Nova Science Publishers.
- Denson, T. F., White, A. J., & Warburton, W. A. (2009). Trait displaced aggression and psychopathy differentially moderate the effects of acute alcohol intoxication and rumination on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 673-681.
- Derogatis, L. R., Lipman, R. S., & Covi, L. (1973). SCL-90: An outpatient psychiatric rating scale - preliminary report. *Psychopharmacological Bulletin*, *9*, 13-25.
- Dollard, J., Doob, L. W., Miller, N. E., Mowrer, O. H., & Sear, R.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eaven : Yale University Press.
- Doob, A. N., & Climie, R. J. (1972). Delay of

- measurement and the effects of film viole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8, 136-142.
- Hoaken, P. N. S., & Stewart, S. H. (2003). Drugs of abuse and the elicitation of human aggressive behavior. *Addictive Behaviors*, 28, 1533-1554.
- Hoobler, J. M., & Brass, D. J. (2006). Abusive supervision and family undermining as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 1125-1133.
- Hovland, C., & Sears, R. (1940). Minor studies in aggression: VI. Correlation of lynchings with economic indices. *Journal of Psychology*, 9, 301-310.
- Koh, K. B., Kim, D. K., Kim, S. Y., & Park, J. K. (2005). The relation between anger expression, depression, and somatic symptom in depressive disorders and somatization disorder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7, 237-245.
- Konečni, V. J. (1974). Self-arousal, dissip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 192-194.
- Konecni, V. J., & Doob, A. N. (1972). Catharsis through displacement of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3, 379-387.
- Liu, L., Cohen, S., Schulz, M., & Waldinger, R. J. (2011). Sources of somatization: Exploring the roles of insecurity in relationships and styles of anger experience and expression. *Social Science & Medicine*, 73, 1436-1443.
- Lyubomirsky, S., & Tkach, C. (2004). The consequence of dysphoric rumination. In C. Papageoriou & A. Wells (Eds.), *Depressive rumination : nature, theory and treatment* (pp. 21-41). Hoboken : John Wiley & Sens.
- Marcus-Newhall, A., Pedersen, W. C., Carlson, M., & Miller, N. (2000). Displaced aggression is alive and well: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670-689.
- Miller, N., & Marcus-Newhall, A. (1997). A conceptual analysis of displaced aggression. In R. Ben-Ari & Y. Rich (Eds.), *Enhancing education in heterogeneous schools: Theory and application* (pp. 69-108). Ramat-Gan : Bar-Ilan University Press.
- Miller, N., Pedersen, W. C., Earleywine, M., & Pollock, V. E. (2003). A theoretical model of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 75-97.
- Noel-Hoeksema, S. (1991). Response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569-582.
- Pedersen, W. C. (2006). The impact of attributional processes on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Motivation and Emotion*, 30, 75-87.
- Pedersen, W. C., Denson, T. F., Goss, R. J., Vasquez, E. A., Kelly, N. J., & Miller, N. (2011). The impact of rumination on aggressive thoughts, feelings, behavior, and arousal.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0, 281-301.
- Redford, P. (1999). Self-construal and anger action tendencies in Hong Kong and United Kingdom. In W. J. Lonner, D. L. Dinnel, D. K. Forgays, & S. A. Hayes (Eds.), *Merging past, present, and future in cross-cultural psychology* (pp. 367-386). Lisse : Swets & Zeitlinger Publishers.
- Reznick, J. S., Hegeman, I. M., Kaufman, E. R., Woods, S. W., & Jacobs, M. (1992). Retrospective and concurrent self-report of behavioral-inhibition and their relation to adult mental-health. *Development and*

- Psychopathology*, 4, 301 - 32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sting, C L., & Nolen-Hoeksema, S. (1998). Regulating responses to anger: Effects on rumination and distraction on angry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790-803.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Tanno, S. (2008). Japanese version of the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Japane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6, 171-181.
- Thomsen, D. K. (2006). The association between rumination and negative affect: A review. *Cognition and Emotion*, 20, 1216-1235.
- Thomsen, D. K., Mehlsen, M. Y., Olesen, F., Hokland, M., Viidik, A., Avlund, K., & Zachariae, R. (2004). Is there an association between rumination and self reported physical health?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7, 215-231.
- Twenge, J. M., & Campbell, W. K. (2003). "Isn't it fun to get the respect that we're going to deserve?" narcissism, social rejection,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261-271.

원고접수일: 2012년 10월 3일

게재결정일: 2013년 1월 30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3, Vol. 18, No. 1, 163 - 181

The Relations of Psychological Well-Being, Self-Esteem, Somatization, Depression and Displaced Aggression

Min-Jae Seo Kee-Hwa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 this study, using the Korean version of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K-DAQ), the relations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self-esteem, somatization, depression and displaced aggression were explored. Displaced aggression denotes the phenomenon that someone expresses his or her aggression to an innocent target rather than the original provoker. The survey data of 369 university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 of trait displaced aggression by a high-ranked 30% group and a low-ranked 30% group. The data were analyzed by ANCOVA with social desirability as a covariance. As the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e., the person with high displaced aggression showed lowe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elf-esteem, higher somatization and depressive tendency than the one with low displaced aggression. Additionally,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subscales of K-DAQ, which affect each variable.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trait displaced aggression, psychological well-being, self-esteem, somatization, depression